

‘마이크로LED’ 전면에… 삼성, 맞춤형 TV 스크린시대 ‘활짝’

110형·101형·89형 모델 첫 공개
백만 단계로 밝기·색조 조정 가능
새로워진 2022년형 네오QLED

삼성전자가 새로운 TV 라인업으로 맞춤형 스크린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다.

삼성전자는 5일 미국에서 개막하는 CES2022에 TV 신제품을 대거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대표 모델은 마이크로 LED TV다. 110형과 101형, 89형 3가지 모델을 처음 공개한다. 최상의 화질을 내는 마이크로 LED 기술에 더해, 2022년형에는 20비트 마이크로 콘트라스트 프로세싱을 적용해 밝기와 색조를 백만 단계로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됐다. DCI 기준 색재현률과 어도비 RGB 색역도 100%를 충족한다.

아울러 ▲별도 공사 없이 간편한 설치 ▲사용자 맞춤형 기능인 ‘아트 모드’, ‘멀티뷰’ 탑재 ▲압도적인 사운드 시스템 제공 등으로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활용도 다양하다. 아트 모드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미술작품이나 사진을 선택해 집안을 갤러리처럼 꾸밀 수 있으며, 2022년형 제품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디어 아티스트인 레픽이나들의 작품 두 점을 독점 제공한다. 또 멀티뷰 기능을 이용해 최대 4개의 HDMI 포트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4개의 서로 다른 콘텐츠를 동시에 시청할 수 있어 대



더 프레임.

화면을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다. 미국 돌비사의 최신 영화 음향 기술인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를 지원해 TV 상단, 측면, 하단 스피커에서 나오는 멀티 채널 사운드를 통해 몰입도 높은 프리미엄 오디오 경험을 선사한다.

네오QLED는 2022년형으로 더 새로워졌다. 네오 퀀텀 프로세서를 개선하고 콘트라스트를 4096단계보다 4배 많은 1만6384단계까지 늘렸다. ‘셰이프 어댑티브 라이트(Shape Adaptive Light)’로 영상에 있는 사물의 형태와 표면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광원 형상을 최적화해 영상의 밝고 어두운 곳의 미세한 표현도 가능해졌다. ‘리얼 텍스 인핸서’가 배경과 대조되는 대상을 자동으로 정해 화질을 개선함으로써 영상의 입체감을 극대화하고, ‘아이 콤포트 모드’를 지원해 주변 조명의 변화에 따라 밝기를 조정하고 블루 라이트 노

출량을 조절해 편안한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

사운드 시스템 역시 대폭 강화했다. TV 뒷면에 상향 스피커를 추가로 탑재해 영상 속 사물의 움직임에 따라 사용자 머리 위로 서라운드 사운드가 형성되는 ‘무빙 사운드’와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한다.

라이프스타일TV라인업도 새로워졌다. ‘더 프레임’, ‘더 세리프’, ‘더 세로’에는 화면에 빛 반사를 방지하는 매트 디스플레이를 새롭게 적용해 아이 콤포트 모드와 함께 편안한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 더 프레임은 크기를 32형부터 85형까지 다양한 사이즈로 구성해 사용자가 좋아하는 예술 작품을 미술관에서 보는 것처럼 편안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다. 베젤 옵션도 확대했다.

스마트 TV에 ‘인 홈 액티비티’도 최적화했다. 스마트허브를 새로 개편해



마이크로 LED.

/삼성전자

‘미디어’, ‘매직 스크린’, ‘게임’ 등 삼성 스마트 TV가 제공하는 주요 경험들로 카테고리를 구성했으며, 왼쪽 사이드바를 통해 다양한 카테고리를 자유 자재로 전환할 수 있다. 콘텐츠 큐레이션, 탐색 기능을 탑재한 ‘미디어’는 강화된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의 선호도를 학습, 여러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콘텐츠를 추천해줄 수도 있다. ‘매직 스크린’은 다양한 아트 작품과 사진을 선택해 TV 화면을 꾸미고 감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게이밍 허브는 사용자가 쉽게 게임을 찾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며, 삼성전자가 협업을 통해 제공하는 엔비디아 지포스나우, 스타디아, 유토믹 등 다양한 게임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양한 추가 기능도 있다. QLED 이상 모델에는 IoT 허브도 내장한다. ‘함

께 보기’ 앱, 마이크로 LED와 네오 QLED에는 ‘NFT 플랫폼’도 탑재했다. 자동 회전 가능한 월마운트 액세서리와 스탠드로 더 세로와 같은 편의를 즐길 수 있게 했다. 2022년형에는 세로형 인터페이스와 수직 멀티뷰 기능도 탑재한다. 자체 카메라 액세서리인 슬림 핏 캠도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새로운 게이밍 규격인 ‘HDR10+ 게이밍’을 시연할 예정이다. 입력 지연을 최소화하고 120Hz 주사율을 지원한다.

사운드바 라인업도 강화한다. TV 스피커와 연동하는 ‘Q-심포니’ 기능을 한층 강화해 최대 22채널 3차원 서라운드를 낼 수 있다. ‘무선 돌비 애트모스’ 기능도 탑재해 2022년 삼성 QLED TV와 사운드바를 와이파이(Wi-Fi)를 통해 연결하면 복잡한 선 없이 간편하게 몰입감 높은 입체 음향을 경험할 수 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LG 씽큐 생태계, 모빌리티 분야까지 확장”

LG전자 더 나은 일상 주제로 소개
‘LG 월드 프리미어’ 온라인 개최

LG전자가 CES2022에 앞서 혁신적인 미래 기술을 먼저 소개한다.

LG전자는 5일 온라인에서 ‘LG월드 프리미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LG전자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다.

주제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일상’으로, ▲고객의 더 나은 일상 ▲모두의 더 나은 일상 ▲미래의 더 나은 일상을 소개한다. 고객이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제품과 솔루션을 활용하며 더 나은 일상을 누리는 모습을 선보일 계획이다.

‘고객의 더 나은 일상’은 집에 오래 머무는 소비자를 겨냥한 신개념 가전을 소개한다. 공기청정팬 ‘LG 퓨리케어 에어로타워’다. 이 제품은 일반 공기청정기와 달리 정화한 공기를 희망 온도에 맞춰 원하는 풍량과 방향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고객은 4계절 내내 기분 좋은 바람을 느낄 수 있다. 식물생활가전 ‘LG 락스 오브제컬렉션’과 무선 이동식 스크린 ‘LG 스탠바이미’ 등 실사용 장면도 소개한다. 지능형라이프스타일 플랫폼 LG 씽큐앱과 씽큐레시피도 선보인다.

‘모두의 더 나은 일상’에서는 환경을 생각한 제품과 솔루션을 통해 모두의



조주완 LG전자 사장

/LG전자

더 나은 일상과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LG전자 ESG 지향점이 소개된다.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 포장한 ‘LG 사운드바 에코클리어와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OLED TV 풀라인업, 2030년까지 총 60만 톤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는 목표도 발표한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있다. 장애인도 가전제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 매뉴얼과 점자 스티커를 만들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과 접근성 전문가로 구성된 ‘장애인 접근성 자문단’을 운영하며 제품의 개발 단계에서부터 접근성을 고려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Life’s Good Award’ 계획을 발표하며 모두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한 혁신 활동도 장려한다. 이 활동에는 누구나 참여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제품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을 제안할 수 있다. LG전자는 내년 CES 2023에서 최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우승자를 선발해 최대 100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세 번째 ‘미래의 더 나은 일상’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미래 자율주행차 콘셉트 모델인 LG 옴니팻을 소개한다. 업무를 위한 오피스 공간뿐만 아니라 영화감상, 운동, 캠핑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개인 공간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LG 씽큐도 적용하면서 자동차를 생활공간으로 진화시킨다.

LG전자는 LG 클로이 가이드봇, LG 클로이 서브봇, 실내외 통합배송로봇 등 5G와 인공지능을 접목한 로봇이 사람과 공존하며 삶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주는 일상도 소개한다.

김래아도 깜짝 등장한다. 뮤직비디오 티저를 통해 가수 데뷔 임박도 알렸다.

LG전자 CEO 조주완 사장은 “LG 씽큐 생태계를 모빌리티 분야까지 확장해 집에서의 경험이 차량 내에서도 끊김 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공간의 경계를 허물며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보일 계획”이며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일상을 위해 혁신을 지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용 기자



지하철용 투명 OLED

/LG디스플레이

지하철 유리에 운행정보… OLED 기술 선택

LG디스플레이 ‘IPS 블랙’ 등 소개

LG디스플레이가 CES2022에서 혁신 기술을 대거 소개한다.

LG디스플레이는 5일 열리는 CES 2022에 ‘Display Your Universe’라는 테마로 부스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테마는 디스플레이 혁신 기술을 통해 고객들의 복합적인 라이프스타일과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며, 차원이 다른 사용 경험을 제공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새로운 패널인 OLED.EX를 비롯해 투명하거나 휘어지는 OLED 솔루션과 노트북용 17인치 폴더블 OLED 및 게이밍 OLED, 그리고 하이엔드 기술인 IPS 블랙까지 소개한다.

OLED.EX는 중수소와 개인화 알고리즘으로 구현한 ‘EX 테크놀로지’로

화질을 혁신한 새로운 패널이다. 화면 밝기를 30% 높이고 베젤을 30% 줄였다.

투명 OLED는 쇼핑몰 등 상업 시설에서 사용할 솔루션으로 만들어졌다. 투명 쇼윈도와 투명 쇼케이스, 지하철 윈도우용 투명 OLED와 투명 스마트 윈도우 등이다. 가정용 인테리어 가구인 투명 헬프도 있다.

플렉시블 OLED는 실내에서도 야외를 달리는 듯한 생동감을 전달하는 ‘버추얼라이드’와 ‘미디어 체어’, 벤더블 게이밍 OLED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됐다.

폴더블 노트북용 OLED는 주름을 거의 없애 자연스럽게 화면을 즐길 수 있다. 태블릿과 노트북, 휴대용 모니터 등 다양한 폼팩터로 개발될 수 있다.

/김재용 기자